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만으로 떠난다

갈대 사이 가을 속삭임 별빛 사이 낭만 데이트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가을이다. 가슴 한 켠 허전함도 달랠 겸 만남과 힐링이 있는 강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남해안 최대 생태서식지 강진만은 강진의 명소 중 백미로 꼽힌다. 2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갈대숲과 1131종의 생물종이 산다. 탐진강 하구와 강진바다가 만나 이룬 천혜의 자연이다. 내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준비중인 강진군은 이 공간을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이름 짓고, 좀 더 세심하게 보존하고 있다. 또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절묘한 융합을 유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 가을 처음으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3일간의 음악여행'도 연다. 여기에 '가고싶은 섬' 가우도 정상 청자전망탑에서 육지까지 이어진 해상 공중하강체험시설 '짚트랙'도 최근 문을 열었다.

이쯤이면 올 가을 필수 여행지로 강진만을 추천할 만 하지 않을까.



강진만 갈대숲

●남해안 최대 1131종의 생물 다양성의 공간 강진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정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진만에는 남해안 11개 하구 평균보다 두 배나 많은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수달을 포함해 알락꼬리마도요, 큰 기러기, 큰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삼, 격저기, 기수갈고동, 붉은발말뚝게, 대추귀고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이 집단으로 서식한다. 강진군은 이곳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생태탐방로는 2.8km에 이르고 습터와 탐조대도 만들었다. 갈대축제장 진입로와 주차장, 범선 모양의 전망대를 들어섰다.

내년에는 이곳에서 전남도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 열린다. 전남도는 행사 성공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5억원씩 15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강진만은 기존 갈대 관광지로 유명세를 치른 곳과는 차이를 보인다. 민물인 탐진강 하류와 강진바다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덕분에 다양한 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 어류를 포함한 동물의 '움직임'을 코앞에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태계다. 짙푸른 연못과 철새의 재빠른 걸음걸이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갯벌 체험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밀물과 썰물의 교차에 따라 생태탐방로가 갯벌로 변하고 강진만 바닷바람은 갈대춤을 불려온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은 남해안 최고의 자연경관과 생태체험 공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길, 다산초당, 백련사, 남당포구, 구강포 등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면서 "올 가을 전국 관광객들이 강진만의 매력에 푹 빠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선 보이는 강진만 갈대축제와 음악여행

강진군은 올해 처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연다. 전국 여행자들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고품격 감성으로 운영한다. 강진읍내 오감통에서는 3일간의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축제는 27일 오후 강진만 갈대숲을 걷는 서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강진만 쉼터 사람 소원의 길, 강진만 갈대 야간경관 체험, 강진만 별빛사이 가을데이트, '강진만갈대' 오행시 짓기, 강진만 갈대숲 전국활영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체험놀이행사로는 포토체험, 희망과 함께 소원을 비는 연과 풍등 날리기, 강진만 갈대 갑옷 만들기, 갈대 미로정원, 갈대공예 및 갈대잎 피리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을 갈대소풍 일정을 마련했다.

공연행사는 '오감통 3일간의 음악여행'이 테마다.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과 음악여행 프러포즈, 보이는 '라디오 강진', 군민과 함께하는 오감통 프렌즈콘서트가 열린다.

'공것으로 보는 나이롱극장'과 가을밤 감성콘서트, 강주 라디오편지 페스티벌, 강진오감통 빅 헬러인 파티, 오감통 사일런트 맨스파티, 가든 팜파티는 축제의 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들은 크게 갈대축제장과 강진읍내 오감통 두 곳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강진한정식 한산 차림 전시와 가을꽃 전시, 전국 캠핑가 등 캐러밴 페스티벌, 우리 삶의 힐링콘서트 등도 개최된다.

강진군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돋우고 편의를 위해 축제장 인근 주차장에 포토존과 꽃밭을 조성하고 사피니아가 핀 화분도 충분히 준비중이다.

●가고싶은 섬 가우도, 청자전망탑 개장과 짚트랙 개통

강진만 한가운데 핫플레이스, 전남도 가고싶은 섬 '가우도'내에 강진의 랜드마크인 명품 시설물이 들어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자모형 전망탑과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공중하강체험시설 '짚트랙'이 주인공이다. 청자전망탑은 가우도내 정상에 25m 높이로 조성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하늘길'이라 불리는 짚트랙. 짚트랙은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된 고정형 구조물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 형성된 경사면에 트롤리를 이용, 별도의 전기적 장치없이 무동력으로 활강하는 친환경 레저시설이다.

강진 가우도 짚트랙은 길이가 1km로 해상체험시설로는 전국에서 가장 길다. 청자전망탑에서 출발해 대구면 저두 해안까지 간다.

라인은 3개로 세 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공중에서 서로 마주보며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횡단시간은 1분. 성인 이용요금은 2만5000원이다. 이 중 5000원은 다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이용료 할인과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가우도가 해상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으로 수입 증대는 물론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힐링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전남 서남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7~30일

오감통서 3일간의 음악여행 즐기고

가고 싶은 섬 가우도선 1km 짚트랙 만끽

강진만 끼고 자전거 달리면 힐링 절로



청자전망탑



짚트랙



가우도 출렁다리



강진만에 서식하는 고니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novita A KOHLER COMPANY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설치시 2만원 추가

<p>품격1 참 편한 비데 Comfort</p> <p>NEW</p>  <p>단위</p> <p>BD-N443(설치비 별도) / BD-N433(설치비 별도)</p> <p>279,000 / 249,000</p> <p>+ 브레프 파워 액티브 5종</p>	<p>품격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p>  <p>BD-N307(A5)설치비 별도 / BD-N427(설치비 별도)</p> <p>159,000원 / 159,000원</p>	<p>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p>  <p>BD-KA433(R/S)1(설치비 포함)</p> <p>219,000원</p> <p>*타사 제품 가능</p>
--	--	--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